

배포 일시	2022. 12. 27.(화)		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주택기금과	책임자	과장	정진훈 (044-201-3337)
			담당자	사무관	배기훈 (044-201-3339)
		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	책임자	단장	김성호 (044-201-3434)
	담당자		사무관	허예원 (044-201-3595)	
	경찰청	경제범죄 수사과	책임자	총경	김종민 (02-3150-2037)
			담당자	경정	김현수 (02-3150-2168)
	주택도시 보증공사	채권관리실	책임자	실장	정보윤 (051-955-5810)
			담당자	팀장	민기식 (051-955-5811)
			담당자	팀장	양귀호 (02-3771-6581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	

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('22. 12. 27. 동아일보) >

- ◆ 646억 떼먹은 집주인... '빌라왕'보다 더한 악성 임대인들
- 일명 '빌라왕' 김모 씨보다 더 악성인 임대인이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

-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임차인을 전세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,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(8.24)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.
-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, 특별단속 기간(7.25~12.11) 간 360건·822명을 검거하여 7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.
- 특히, 언론에서 보도된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도 그간 경찰청과 수시로 긴밀하게 자료를 공유하였고, 그 결과, 23명은 직접 수사의뢰 하였으며, 경찰은 23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(3명은 구속), 18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,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채권회수 특별전담반을 설치하고,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, 연락이 두절된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경찰청,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근절과 임차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